

어둠에 묻힌 학살의 기억... 현재를 비추는 '무기력한 풍경'

권승찬 작가 기획전

27일까지 호랑가시나무창작소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모티브



한국전쟁 발발로 자행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우리 역사의 아픈 단면이다. 특히 좌익을 가려내고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자행된 처형은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온전히 그 진상이 밝혀지지 못한 채 어둠속에 묻혀 있다. 권승찬 작가의 고향인 장흥에서도 집단 학살이 있었다. 당시 바다에 수장된 희생자들은 작가의 작품활동에 모티브가 됐다.

권 작가는 자신의 고향뿐 아니라 광주를 비롯해 전남 각지, 그리고 전국을 찾다니며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했다. 그의 작업과 작품은 지난 2024년 도립미술관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당시 권 작가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제 고향 장흥을 비롯해 남도에서도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며 "여러 지역의 리서치를 통해 금기시했던 당시 희생자들과 끔찍했던 국가 폭력의 실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전쟁 당시 자행됐던 민간인 학살을 모티브로 한 권 작가의 전시가 진행 중이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기획전으로 마련한 '무기력한 풍경'이 27일까지 열리고 있다. 작가는 도립미술관 전시 이후 조사 범위와 매체를 확장해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작가는 과거 비극으로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닌 현재까지 지속돼온 국가 폭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주목한다. 폭력의 구조와 그 이후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특유의 예리한 감각으로 포착해 '진실'을 파헤친다.

작품은 회화를 비롯해 설치, 비디오 작업이 포함돼 있다. 작가는 이번 작업을 위해 희생자 매장지 65곳을 직접 찾다니며 영상으로 기록했다.

매마른 풍경이 분홍색 종이에 스며든 목탄의 흔적은 보는 이에게 미처 다 말해지지 않는 당시의



1, 2 호랑가시나무창작소에서 27일까지 진행되는 권승찬 작가의 전시는 한국전쟁 직후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모티브로 한 프로젝트다. '무기력한 풍경'

진실과 참상을 말해준다. 연소와 소멸의 흔적으로 남은 과거의 잔상은 작가의 역사적, 예리한 감각과 맞물려 먹먹한 슬픔과 강렬한 메시지로 전환된다.

작품 '무기력한 풍경'은 학살의 상흔과 처참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각기 다른 흙들은 작가가 직접 현지 조사와 답사를 통해 채취한 것들로 엄숙함과 비애감을 준다.

한편 정현기 대표는 "이번 전시는 동시대의 감각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권 작가의 작품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의미와 맥락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무용단의 '몽유도원무'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국립무용단 '몽유도원무' 광주 무대에 ACC 재단, 4월 3~4일 예술극장

조선 전기 활동했던 안건은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이루었던 당대 최고 화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산수화를 잘 그렸는데 그의 작품은 후대의 저명한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대표작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광경을 안건이 산수화로 그린 것이다.

'몽유도원도'를 모티브로 한 국립무용단 작 '몽유도원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무대에 오른다. 오는 4월 3일~4일.

ACC재단은 이번 공연은 '찾아가는 국립극장' 공모사업 일환으로 선정됐다고 했다. 또한 국립무용단 작품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 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전했다.

안건의 '몽유도원도'가 문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발하는 점에 착안, '몽유도원무'에도 이상향에 대한 염원이 투영됐다. 한국적 감성, 현대적 감각을 접목해 세세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창작무용의 미학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규 ACC재단 이사장은 "'몽유도원무' 공연은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향후에도 문화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다진다는 관점에서 작품성 높은 작품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티켓 예매 및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류 대세는 여전히 K-팝"... '케데헌'·'폭삭 속았수다' 흥행

문체부 '2025 글로벌 한류 분석' 블랙핑크 14.2% 최상위 화제성 한류 보도 가장 많은 나라 '미국' 드라마·영화 속 K-푸드 재조명



'블랙핑크'

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제작 '골든'은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하는 등 영화·음악 분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저승사자와 도깨비 등 전통문화 소재와 김밥·라면 등 한식이 자연스럽게 결합한 점이 흥행 요인으로 꼽혔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도 국가별 정서에 맞춘 제목 현지화 전략과 보편적 가족애 서사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넷플릭스 방영 이후 제주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만의 관식 챌린지' 등 관심이 이어지면서 지역 콘텐츠의 세계화 사례로 평가받았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공개 이후 93개국 1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평론가 지표는 다소 하락했지만, 꾸준히 높은 대중적 관심을 유

지했다. K-푸드의 유행도 두드러졌다. 김치, 소주, 라면, 비빔밥 등 대중적·전통적 한식 요리 용어와 함께 셰프, '오징어 게임'이 새롭게 연관 핵심어로 부상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내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한식이 재조명된 효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문체부와 문화정보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된 전 세계 30개국 외신 기사와 SNS 등 한류 관련 자료 약 150만건을 수집·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은복 문체부 해외홍보정책관은 "한류가 단순한 콘텐츠 유행을 넘어 국가 브랜드와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주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맞춤형 해외 홍보 전략을 수립·고도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참가작품 모집...3월11일까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2026년 '토요상설공연' 참가 작품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공연은 공모 선정 작품 15회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예능보유자(단체) 초청 기획공연 11회로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개인 10명(판소리, 산조 분야별 5인)과 단체 10팀(국악창작 분야 5개 단체, 전통연희 또는 무용 분야 5개 단체)이다. 선정된 개인에게는 출연료 100만 원, 단체(국악창작·전통연희·무용)에게는 출연료 2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전통예술의 전승과 계승을 위한 공

연 역량을 갖춘 전문 단체(개인)면 된다. 올해는 광주 외 타지역 예술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전통예술의 폭넓은 교류를 도모할 방침이다. 단 종교 기관 소속 단체, 학교학위 취득 연수 목적, 출연진 전체 중 30%가 아마추어 수강생으로 구성된 단체(개인)는 제한된다. 또한 '2025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에 참여한 단체(개인), 2026년도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통합공모)에 2건 이상 선정된 단체(개인)도 제한된다.

제출 서류 서식은 광주문화재단 및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장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원2길3(서원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